

밴드 변신 원더걸스 “록 페스티벌 나가고 싶어요”

밴드 준비? 매순간 치열한 싸움이었던
젊은 시행착오가 팀을 끈끈하게 만들어
1회성 아나...완성형 밴드로 거듭날 것

‘밴드 원더걸스’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냥 콘셉트일 뿐”이라며 밴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원더걸스 스스로도 합주연습을 하면서 걱정이 많았다. 밴드 변신에 대한 팬들과 대중의 거부감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더걸스를 좋아했던 건, 따라 부르기 쉬운 춤과 음악이었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선예와 소화가 팀을 떠났고, 선미가 재합류한 것도 ‘격정요소’였다.

세간의 평가야 어찌됐든 원더걸스는 이달 초 내놓은 3집 ‘리부트’의 타이틀곡 ‘아이 필 유’는 멜론 등 주요 음원차트에서 3주째 10위권을 지키고 있다. 원더걸스의 ‘리부트’(재시동)는 일단 성공적이다. 악기를 든 모습도 그리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미완성 밴드라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 밴드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부족하고,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더욱 열심히 해서 완성시켜 나갔겠다.”

원더걸스는 밴드이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뮤직비디오에서 수영복을 착용해 퍼포먼스는 썩시해 보인다. 그래서 ‘섹시밴드’라는 수식어도 나왔다. 70~80년대 미국 걸밴드의 모습이다. 장미여관, 스키조 등의 밴드는 SNS 등을 통해 이들의 변신을 격려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인해 밴드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환기될 수 있다는 격려에 힘을 얻고, 책임감마저 생긴다. 새로운 걸 배울 때,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 힘들기는 했지만 후회는



돌아온 원더걸스의 선택은 밴드였다. 멤버 4명이 한데 어우러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활동이다. 원더걸스는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컸다”고 말했다.

해본 적 없다.”

지금이야 “밴드생활이 재미있다”고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매순간이 위기”였고,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악기 연습하면서 생기는 슬럼프, 곡 선정과 솔로 파트에 대한 이견은 스트레스였다. 팀을 위한 건설적인 갈등이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은 힘든 법이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는 멤버 간 우애와 팀워크를 더욱 튼튼하게 해줬다.

“밴드가 되면서 더욱 책임감이 생겼다.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밴드 퍼포먼스를 준비할 때는 내 것에 집중하는

데, 합주는 다른 멤버들의 악기소리를 들으며 맞춰야 했다. 이전 연주 소리를 듣다보면 그 멤버의 기분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처음엔 모두들, 자신이 맡은 악기가 제일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차츰 다른 멤버들을 보며 ‘참 힘들겠구나’ 생각되면서 서로 배려하게 됐다.”

이제 관건은 원더걸스가 앞으로도 계속 밴드로 활동하느냐다. 다음 음반에서 곧바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변신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모르나, 1회성은 결

코 아니다. 이미 회사에서 거금을 들여 밴드 합주실도 마련했다.”

기왕 밴드로 나선 원더걸스는 “앞으로 록 페스티벌에도 나가고 싶다”고 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지 않나. 우리가 살아남고자, 해나가고자 한다면 강한 자가 되지 않을까. 요즘 후배들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는다. 그들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엄청나다. 우리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다.”

김원경 기자 gummy@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9년 8월 20일〉



장윤정, 20주년 강변가요제 대상

MBC ‘복면가왕’이 인기가. 기상천외한 가명으로 얼굴을 감춘 채 가창력을 자랑하는 스타들이 드러내는 ‘신선함’ 덕분이다. 6월 말 연기자 문희경이 ‘사모님은 쇼핑 중’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실력을 뽐냈다. 각종 드라마로 낮익은 그의 얼굴을 확인한 시청자는 탄성을 내질렀다. 특히 속대 불문과 4년생이던 1987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강변가요제’는 1979년 7월26일 ‘MBC FM강변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술한 스타를 배출했다. 그 가운데 장윤정(사진)도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그가 대상을 수상한 날, 1999년 바로 오늘이다. 장윤정은 당시 서울예대 방송연예과 1년생으로, 라틴 댄스곡 ‘내 안의 너’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나머지 11팀(명)을 제쳤다. 가요제 20주년을 맞아 ‘전문대 재학 이상’이라는 학력제한을 없앤 첫 번째 무대의 대상이었다.

직후 장윤정은 대형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정식 가수로 데뷔할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4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기회는 오지 않았다. 결국 2004년 ‘어머나’로 스타덤에 올랐다.

장윤정 말고도 ‘강변가요제’는 많은 가수들에게 등용문이 되어 주었다. 1980년대 초 사랑의 하모니(별이여 사랑이여), 홍삼트리오(기도) 등이 유명세를 떨쳤다. 1981년에는 주현미가 중앙대(약학과) 밴드 인삼뿌리의 멤버로 ‘이 바다 이 겨울 위에서’를 불러 장려상을 받았다.

‘J에게’의 이선희는 1984년 인천전문대를 다니며 임성균과 함께 ‘4막5장’을 이뤄 대상을 차지했다. 부모님이 알아볼까 두려워 뽀글퍼머 스타일로 무대에 오른 일화는 유명하다.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다니던 배우 한석규도 그해 ‘뱃마루’라는 이름의 듀오로 출전해 장려상을 받았다.

서울예대를 다니던 박미경은 이듬해 ‘민들레 홀씨되어’로 장려상 수상자가 됐다. 1988년 ‘답답디’로 대상을 받은 이상은은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었고, 금상 수상자인 이상우(동아대 응용통계학과)는 ‘솔몬 그림 같은 사랑’을 불렀다.

이 외에도 유미리, 박성신, 박명미, 진시몬, 박선주 등 많은 가수들을 처음 무대에 나서게 한 ‘강변가요제’는 2000년대 들어 기획사를 통한 데뷔 방식이 일반화하고 10대들이 가요시장을 장악하면서 점점 그 명성을 잃어갔다. 그리고 2001년을 마지막 무대로 폐지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장사의 신’ ‘두번째 스무살’ ‘부탁해요 엄마’...다시 손잡은 스타와 PD

과거 인연을 맺은 연기자들과 PD들이 잇달아 새 작품에서 재회하고 있다.

다음달 23일 방송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재주 2015’로 컴백하는 연기자 김민정은 아역시절 자신을 이끌어준 김중선 PD와 17년 만에 다시 만난다. 김민정은 고교 시절인 1998년 ‘왕과 비’에서 비운의 단종비를 연기했다. 성인 연기자가 된 후 ‘장사의 신’의 여주인공 매월 역할을 맡았다.

‘장사의 신’ 관계자는 “김민정은 아역시절부터 가능성이 돋보였던 연기자로, 김중선 PD가 유독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이번 작품 역시 김민정에게 가장 먼저 러브콜을 보냈

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재회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최지우는 자신의 연기인생 2막을 열어준 연출자 김형식 PD와 다시 손잡는다. 작품은 케이블채널 tvN 새 금토드라마 ‘두번째 스무살’. 최지우는 김 PD가 연출한 2013년 SBS ‘수상한 가정부’에서 비밀스러운 사연을 간직한 가사도우미를 연기하면서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두번째 스무살’을 선택한 것도 김 PD의 존재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이번에는 대학생으로 또 한번 연기변신을 시도한다.

출산 4개월 만에 KBS 2TV 주말드라마 ‘부

탁해요 엄마’로 복귀한 유진도 연출자 이진준 PD와 인연이 깊다. 겐결로 S.E.S 멤버였던 유진은 2002년 이 PD가 연출한 KBS 2TV 드라마 ‘러브유’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전향했다. 유진은 최근 ‘부탁해요 엄마’ 제작발표회에서 “살을 좀 더 빼고 작품을 복귀하고 싶었지만 이진준 PD의 러브콜을 받고 ‘이제는 내가 보낼 차례’라 생각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탁해요 엄마’는 15일 첫 방송에서 14.9%(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가 2회에서는 24.4%로 수직상승하며 KBS 주말극 부활에 청신호를 쳤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빅마우스

●‘영화 ‘건축학개론’의 수지 역할 제의받았다.’ (소녀시대 서현) 1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출연하고 싶었지만 소속사가 반대했다”며,

●‘군대에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했다.’ (연기자 양동근) 19일 뮤지컬 ‘인 더 하이스’ 기자회견담회에서, 군 복무 중 뮤지컬 무대에 오른 경험을 소개하며,

●‘하루만 지나면 ‘사실무근’이 ‘사실’이 되더라.’ (누리꾼 2001**) 배우 강동원과 전속계약을 추진하는 몇몇 기획사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기사의 댓글에서,

강한남자 빅맨

커지고! 단단하고! 오~~래간다!

강한남자로 변신 시켜주는
빅맨(Big Man)

발기력! 조루! 파워!

성기능강화!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자신감 회복!

제품구입문의 010-3185-4999

고개숙인 남성 “센터치”가 인기!

■광고시전 심의필증
심의번호 2008-97-09-0065
(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 취득)
·제조허가 no 제802호
·품목허가 no 제2000-1호

최근 만년필처럼 생긴 “센터치”(발기 유발제 약물주입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직접 주사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여 왔었는데 이를 “센터치”라는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센터치”는 버튼 하나로 간단히 약물(약물은 병, 의원

에서 처방함)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의료기기이고, 볼펜처럼 작아 휴대가 편하다. 또한 조작이 쉬워서 누구든지 편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제품의 장점이다. (약물 효능은 병, 의원으로 문의)

문의 (서울)02-2279-4657
(부산)051-808-7411 BT코리아

당당한 자신감!

남성 수술 상담

음경 + 귀두
길 이 + 조루수술

★주사요법 확대

★대체 진피이식술

★포경·무도정관수술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음경만곡증 (성기형) 교정술

★발기부전수술 (굴곡형·평창형 시술로 성생활 가능)

※ 수술 당일 샤워, 일반적인 생활 가능

임리적인 비 용

적은 횟수 최소절개

풍부한 경험

천호역 뉴맨남성의원

02)477-7523

위치 :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한국투자증권 3층

www.198282.net

신음소리에서 과성소리까지!

명기

외로운 밤~♡

19

외로운 남성들을 위로해주는
명기가 최고야

명기 이외 제품은 저가품 중국산입니다.

국내산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된 절대 무독성이며, 촉감이 부드럽고, 탄력이 우수, 휴대하기 간편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성인용품점이나 시중에없는 국산품 입니다. made in korea

★국내최고의제품 절대 타지않습니다★

실물보다 더 섹시한 공기인형 "명기" "명기"와 놀다보면 날 새는줄 모릅니다.

제품문의 1577-4101 / 010-6380-5877

강한 男子

음경 확대

귀두 확대

조루 치료

발기 부전

●미세자지방 이식술

●주사요법 확대술

●대체진피 이식술

●정관·포경수술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각종보형물 삽입술

열린상담

풍부한 경험

합리적인 비용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24시간 상 담

대일남성의원

(代) 02)444-1233

※일요일·공휴일·아간 예약수술 가능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농협 2층